

최민정측, 체육회·빙상연맹에 “심석희 고의충돌 의혹 밝혀달라”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女 1000m 결승 고의충돌 의혹 “최민정, 심각한 스트레스·부담감”...심석희는 부인 최민정 소속사 “쇼 놓쳤을뿐 아니라 심한 부상까지”

한국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팀 심석희(24·서울시청)와 국가대표 A코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거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女 1000m 결승 고의충돌 의혹에 대해 최민정(23·성남시청) 측이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최민정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12일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女 1000m 결승에서 최민정을 상대로 심석희와 국가대표팀 코치가 모의한 의혹이 있는 충돌사고, 일명 ‘브래드버리 만들기’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밝혀달라”며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2018년 2월22일 열린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심석희와 최민정

은 서로 부딪혀 넘어졌다. 마지막 바퀴에서 최민정이 바깥으로 크게 돌며 치고 나오다 코너 부분에서 심석희와 충돌했다.

심석희는 패널티를 받아 실격 처리됐고, 최민정은 4위로 밀렸다.

심석희와 A코치의 당시 문자메시지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는데 고의성 의혹이 드러났다. 경기를 앞두고 A코치는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여자 브래드버리를 만들어야지”라고 언급했다.

스티븐 브래드버리(호주)는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다. 당시 선두 그룹에 크게 뒤쳐져 달리던 브래드버리는 앞서 달리던 안현수, 아폴로 안톤 오노 등 4명이 한꺼번

에 넘어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올댓스포츠는 “최근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당시 심석희와 A코치의 대화 내용 및 실제 경기에서 일어난 행위를 엄중한 사항이라고 판단, 체육회와 빙상경기연맹에 관련된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경기가 열렸던 당일 밤에는 심석희가 A코치와 ‘그래도 후련하겠다. 최고였어-ㅎㅎ’라고 대화를 주고 받았다. 이 내용은 해당 충돌이 우연이 아닌, 고의적으로 일어났음을 짐작케하는 결정적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동희 올댓스포츠 대표는 “당시 최민정은 팀 동료와 충돌로 인해 획득이 유력했던 금메달을 어이없게 놓쳤을 뿐만 아니라 무릎인대를 다쳐 보호대를 착용하고 절뚝거리며 걸을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이어 “심석희와 A코치 사이에서 오간 대화와 똑같은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다. 서로 칭찬하고 기뻐하는 대화내용은 의도적으로 최민정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승부조작을 넘어 최민정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심석희는 2018년 2월13일에 A코치와 나는 대화에서 최민정이 500m 경기를 치르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취준위를 크게 외치며 응원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국가대표팀 동료가 해당 경기에 출전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팀 동료의 경쟁자인 중국 선수를 응원했다는 것은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 선수로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내년 2월 베이징올림픽에선 어떤 생각과 행동, 어떤 미국행위를 할지 심히 우려된다”고도 했다. 심석희와 최민정은 내년 베이징올림픽 국가대표 선발된 상태다.

최민정에 대해선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로서, 우리 나라에 최고의 성적을 가져오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심석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심



지난 2018년 2월22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준결승에서 한국 심석희 최민정이 결승선을 들어서고 있다.

석희와 향후 같은 공간에서 훈련하고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최민정에게 심각한 스트레스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는 곧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민정은 이번 일로 인한

충격으로 향후 심석희와 함께 훈련하거나 대회에 출전하는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때와 똑같은 상황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심석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빙상경기연맹은 조사에 나섰다.



NC·SSG 약진, 혼돈의 5강 싸움...두산 4위 자리 흔들

KT·LG·삼성, 3강 싸움도 치열한 전개 예상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SSG 랜더스가 5할 승률에 복귀하며 키움 히어로즈와 함께 공동 5위에 올라 포스트시즌 진출을 노리고 있다.

NC는 지난주(10월5일~10일) 3승 1무 2패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

시즌 59승 7무 55패의 성적을 올린 NC는 SSG(60승 11무 60패), 키움(61승 6무 61패)과 함께 ‘가을야구’ 진출 티켓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NC는 지난주 에이스 드류 루친스키, 신민혁, 송명기 등 선발진의 활약을 앞세워 승리를 거머쥐었다. 불펜투수들도 모두 호투를 펼쳐 스프릿의 기회를 잡았다.

루친스키는 시즌 14승을 올려 다승 부문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 루친스키는 12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키움 에이스 에릭 요키시(14승)와 다승 단독 1위 자리를 놓고 맞대결을 펼친다.

양의지와 강진성은 NC의 타선을 이끌었다.

특히, 양의지는 지난주 홈런 2개와 함께 6타점을 기록했다. 득점권 상황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양의지는 KBO리그에서 가장 먼저 100타점 고지를 밟았다. 최근 2년 연속 100타점이다.

NC는 이번주 키움과의 3연전을 시작으로 상위권 진입을 노리는 4위 두산 베어스와 맞붙은 후 1위 탈환을 노리는 LG와 더블헤더를 포함해 세 차례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SSG는 지난주 4승 2패의 호성적을 기록했다.

SSG 최민준은 지난 5일 LG 트윈



KIA 나주환 은퇴...지도자로 인생 2막

“후배들이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도울 것”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내야수 나주환(37)이 현역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지도자의 길로 들어선다.

KIA는 12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내야수 나주환에 대한 웨이버공시를 신청했다.

나주환은 최근 구단에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구단은 나주환의 뜻을 받아들여 웨이버공시 신청을 하게 됐다.

나주환은 향후 KIA 잔류군에서 유망주 선수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나주환은 “현역 생활의 마지막 기회를 준 KIA 타이거즈 구단과 팬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면서 “지도자로서 후배들이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19년 무상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은 나주환은 올해

가상으로 공동 5위 세 팀에 1.5경기 차로 추격을 허용했다.

두산은 올해 롯데와 한화에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에도 상대적인 부진이 이어졌다.

분위기 반전에 나선 두산은 1위를 달리고 있는 KT 위즈와의 3연전을 포함해 6경기를 치른다.

두산은 이번주 시합을 건다. 워커 로켓이 팔꿈치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하면서, 에이스 아리엘 미란다, 최원준, 광빈 등 선발진의 책임감이 더욱 막중해졌다. 침체된 타선의 부활도 절실하다.

사상 처음 정규리그 우승을 노리는 KT(71승 7무 50패)와 기록 없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 2위 LG(66승 7무 52패),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3위 삼성 라이온즈(68승 8무 54패)의 상위권 순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세 팀들은 12일 각자 경기에서 모두 외국인 투수를 투입해 승리를 노린다.



가치 17시즌 동안 1506경기에 출전했으며, 타율 0.262에 1018안타(89홈런) 524득점 496타점을 기록했다.



이재영·이다영, 그리스 취업비자 발급 인터뷰 이르면 금요일, 늦어도 주말내 그리스행 비행기 오를 듯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이다영이 그리스 진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취업비자 발급 인터뷰를 마쳤다.

12일 배구계에 따르면 두 선수는 이날 주한그리스대사관을 찾아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제배구연맹(FIVB)으로부터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 받은 두 선수는 취업비자만 손에 쥐면 그리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다.

이미 ITC와 관련 서류들을 모두 갖췄기에 비자 발급은 문제가 없다. 발급 기간을 고려하면 두 선수는 이르면 금요일 또는 늦어도 주말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리스 출국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리스리그는 지난 9일 개막했지만



두 선수의 추후 합류에는 문제가 없다. 뉴스

전주에서 열리는 ACL 8강·4강 관중 입장 허용...25%인 1만석

울산·전북·포항 진출...15일부터 입장권 예매

이달 전주에서 열리는 2021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전과 4강전에서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7일 챔피언스리그 8강전과 20일 4강전 경기가 유관공 상태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올해 챔피언스리그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8강전부터 중립지역에서 단판 경기로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권역 8강전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포항 스틸러스-나고야 그램퍼스(일본)의 8강전은 17일 오후 2시, 전북 현대-울산 현대

는 같은 날 오후 7시에 대결한다.

8강전에서 승리한 두 팀은 20일 오후 7시에 4강전을 치른다.

관중 수용 규모는 전주의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기준에 따라 전주월드컵경기장 전체 좌석의 약 25% 수준인 1만석이다.

8강전 입장권 예매는 15일 정오부터 티켓링크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현장 판매 없이 온라인 사전 예매로만 판매된다.

전 좌석 지정이다. 4강전 입장권 예매는 18일 정오부터 가능하다.

최지만, 시즌 마무리...부상으로 아쉬운 시즌 정규시즌 83경기 나와 타율 0.229 11홈런 45타점

탬파베이 레이스의 ‘가을야구’가 막을 내렸다. 최지만(30) 역시 포스트시즌을 마감했다.

탬파베이는 12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5전 3선승제) 4차전에서 5-6으로 패했다.

디비전시리즈 1차전을 승리한 탬파베이는 거지말처럼 내리 3연패를 당해 챔피언십시리즈 진출에 실패했다.

탬파베이는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1위를 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최지만은 디비전시리즈 1차전에서 솔로 홈런을 터뜨려 포스트시즌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그러나 3, 4차전에서 모두 2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며 타선에 힘이 되지

못했다.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7타수 2안타(1홈런)에 그쳤다.

최지만은 올해 힘겨운 시즌을 보냈다. 최지만은 무릎 수술로 인해 5월17일이 돼서야 첫 경기를 치렀다. 6월3일까지 3할 타율을 기록하며 선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6월5일 윈 사타구니 통증으로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최지만은 올 시즌 세 차례나 부상자 명단에 등재됐다.

이후 최지만은 2할대 타율을 기록했고, 간간히 홈런과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타격감을 찾지 못하고, 162경기 중 83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타율 0.229(258타수 59안타)에 11홈런 45타점 36득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